

# 「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」 수상작 발표

- 통일부장관, 각 국 대사들, 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 
어린이들이 노래하는 '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'의 꿈을 공유 -

-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2023년 9월 22일 「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」 결선을 개최하고 '너와 내가 만나면'(작사 이다원, 작곡 민유리, 노래 친구사이)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.
- 올해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에는 총 118곡이 출품되어, 예선 심사(8.24.~8.30.)를 거쳐 9곡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, 대국민 온라인 투표(9.8.~9.17.)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.
-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통일이라는 주제가 친구, 계절, 바람개비, 퀴즈대회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부르기 쉬운 동요로 탄생하여 울려 퍼졌습니다.

## < 「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」 수상작 목록 >

	곡명	팀명
대상	너와 내가 만나면	친구사이
최우수상	그리운 이야기	김윤희
	평화통일 대문놀이	또래친구들
우수상	평화통일을 향해	도란도란 중창단
	통일, 그 날이 오면	소리별 아이들
	통일퀴즈대회	러브엔젤스
장려상	우리 모두의 통일 바람개비	레인보우 예술단
	좋은날 기쁜날	강수진
	참 좋은 통일	아리아리 중창단

- 이번 결선 대회는 통일부장관의 격려사, 주한독일대사의 축하, 작년 대상 수상팀, 탈북어린이합창단('희망의 두드림 합창단'), 탈북 해금연주가의 축하 공연으로 풍성하게 꾸러졌습니다.

-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“예술과 문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통일을 경험하는 것이 통일준비의 중요한 부분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, 어린이들에게 “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, 통일미래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습니다.
-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(Georg Wilfried Schmidt) 주한독일대사는 축사를 통해 독일 또한 분단의 아픔을 가진 나라라고 소개하며,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통일의 꿈을 꾸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통일부장관, 주한독일대사, 국립통일교육원장이 수상한 어린이들에게 시상하였고,
  - 주한덴마크대사관, 주한태국대사관, 주한필리핀대사관의 공관 관계자, 안나 카민스키(Anna Kaminsky) 독일 연방독재청산재단 사무총장 등 외부인들이 참석하여 참가 어린이들을 격려하였으며,
  - 어린이들이 노래하는 ‘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’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□ 수상작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과 「제10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」 누리집, 유튜브 등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며, 이후 주요 음원 사이트에 등록하고, 뮤직비디오로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.

\*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주소 : <https://www.uniedu.go.kr> > 통일체험마당 > 자료실

\* 제10회 청소년 평화통일문화 경연대회 누리집 주소 : <http://uni-contest.com>

□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는 올해 10회째를 맞은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의 일환으로, 통일을 주제로 한 동요를 만들고 부름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통일 미래를 꿈꿔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.

□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어린이·청소년 등 미래세대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평화통일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[끝]

담당 부서	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	책임자	과 장	서영신 (02-901-7070)
		담당자	주무관	장 미 (02-901-7075)